역사·문화따라 발길 절로…걸음걸음마다 힐링 절로

걷고 싶은 강진

걸어본 이들은 안다. 걷는 것이 여행이란 것을.

걸으면서 만나는 것은 비단 꽃과 나무, 바위만이 아니다. 더욱이 같이 걸으면 안정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연인, 가족과 함께 라면 더욱 그렇다.

내 맘과 몸의 치유를 위한 길이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 있다. 역사와 문화를 껴안고 있는 길이다. 강진에 있는 그 길을 걸어 보자.

고즈넉한 고찰·호남 3대정원·차밭 등 따라 치유의 길

강진원 군수 "바람과 꽃 즐기며 따뜻한 정 느껴보세요"

강진을 찾은 탐방객들이 남도명품길 코스인 도암면 석문공원길을 걷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남도명품길-다산의 흔적, 그 사색의 길을 걷는다

백련사~다산초당~석문계곡~주작산 휴양림

숲에서 솔솔 부는 바람,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어우러진 '남도명품길'이 으뜸으로 꼽힌다.

다산과 인연을 맺은 혜장선사의 흔적, 백련결사의 혼이 서려 있는 강진군 도암면 만덕산 백련사가 시작점이다. 산과 마을을 지키는 신령처럼 고개마다 자리잡은 고목들이 신비롭다.

가볍게 숨을 내쉴 정도의 완만한 경사에 굽이도는 길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다산의 정원 '조석루'를 지나고 백두대간의 기운이 넘치는 주작산에서 마무리되는 강진 '남도명품길'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온기를 전해주는 흙과 친구가 되는 여정이다. 남도명품길은 다산·바람·꽃이 있는 '사색의 길'로 불리기도 한다.

남도명품길 1코스는 백련사~다산초당~다산수련원~석문계곡~소석문~도암면사무소까지다. 7㎞로 2시간10분 정도 걷는 코스다.

신라 말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남도의 문화와 역사가 서려 있는 백련사를 시작으로,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저술가·시인·철학자·과학자·공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치고 '목민심서' 등 50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던 '다산초당', 그리고 '다산'의 정신을 승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산수련원'이 있다.

1코스 중간을 지나 만나는 세월과 비바람이 조각한 기암괴석이 장관인 만덕산과 석문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장 산악 현수형 출렁다리인 '사랑 구름다리'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반가움에 손을 흔들게 된다.

남도명품길 2코스는 1코스 출발지인 백련사, 다산초당, 다산수련원을 지나 마점마을을 기점으로 깃대봉으로 방향을 바꾼다. 8.7㎞로 3시간 가량 걸린다.

다산의 친구이자 사돈이었던 해남윤씨 윤서유가 생활했던 곳으로, 유배시절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자주 찾았던 명발당이 있는 항촌마을에 들어서면 수령이 수 백년인 노거수가 반긴다. 다산을 맞이했던 것처럼. 남도명품길 3코스는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편 모습으로 백두대간의 기운을 내뿜는듯한 주작산과 덕룡산이 압권이다. 도암면사무소를 시작으로 다산 사위묘, 월하마을, 수양마을을 거쳐 주작산 자연휴양림이 도착지다. 9.2㎞로 3시간20분을 걷는다.

농촌마을의 생활풍경을 살짝 들여다보면서 걷는 길이다. 편안하고 아기자기하다. 월하리 마을회관을 지나면 윤서유의 별장이었고, 빼어난 경관 때문에 다산이 자주 찾았던 조석루가 시원하게 쭉 뻗은 왕대나무숲에 둘러싸여 고즈넉함을 더해준다.

수양마을과 수암저수지를 끼고 돌아 나가면 종착지인 주작산 자연휴양림이 나온다. 예약을 하고 하루쯤 묵어가면 더할 나위 없다.

강진군 만덕산과 석문산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 산악 현수형 출렁다리인 '사랑 구름다리'.

달빛길-월출산 아래 달빛길은 풍요롭고도 고요하다

무위사~백운동~강진다원~이한영생가~월남사지~달빛마을

강진 달빛길은 월출산 아래 강진군 성전면 천년고찰 무위사에서 출발한다. 1962년 국보 제13호로 지정된 극락보전이 있다. 극락보전 안에 그려진 아미타여래삼존벽화는 2001년 7월 국보 313호로 지정됐다. 이 벽화는 호화찬란한 고려불화의 영향과 조선 초기의 새로운 수법이 표현된 걸작이다. 국내 현존하는 조선조 아미타불도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오래됐다.

극락보전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볼 수 있다. 아미타여래불과 좌우에 있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은은한 미소를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다.

무위사를 나와 월출산을 왼쪽 어깨에 두고 백운동 정원으로 향한다. 백운동 정원은 담양의 소쇄원, 완도 보길도의 부용동과 함께 이른바 '호남의 3대 정원'으로 꼽힌다.

다산은 이곳에서 하루를 묵었다가 절경에 반했다. 제자 초의선사와 함께 백운동 정원 12경을 읊었다. 12수가 전한다. 다산이 8수, 초의가 3수, 제자 윤동이 1수를 지었다.

백운동을 뒤로 하고 거슬러 올라오면 널따란 차밭이 나온다. '강진에 이런 멋진 차밭이 있다니'.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강진다원이다. 한국 제다업계의 선두주자인 '태평양다원'이 운영하는 차밭이다. 면적이 무려 33.3ha에 이른다.

이한영 생가는 지난 2010년 원형 그대로 복원돼 있다. 깔끔하다. 이한영 선생은 다산과 초의선사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차 역사의 맥을 이어온 다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녹차 상표인 '백운옥판차'는 성전면 월하리 백운동에 있는 '옥판산의 차'라는 의미다. 다음은 월남사 옛터, 월남사지. 고려 진각국사 혜심이 중건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폐찰됐다. 보물 313호인 진각국사비와 보물 298호인 삼층석탑이 옛 이야기를 들려줄 듯 말 듯 하다. 삼층석탑은 높이가 7m에 이른다. 돌을 깎아 벽돌처럼 만든 다음 쌓아 올렸다. 전형적인 백제탑으로 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다. 지금은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월남사지를 거쳐 마을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달빛길 종착점인 달빛한옥마을에 도착한다. 이곳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사진찍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민박도 한다.

강진 달빛길은 무위사를 시작으로 백운동 정원, 월출산 강진다원, 이한영생가, 월남사지를 경유해 달빛한옥마을에 도착하는 4km의 걷는 길이다. 1시간 남짓이다. 강진군은 월출산권역의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남도명품길과 월출산 자락 아래로 이어지는 달빛길은 자연이 만든 그림 아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걷는 이의 마음에 위로를 건넨다"며 "제주의 올레길보다 아름다운 코스로 만들어 길에 관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